

석유화학, 차이완 효과로 “타격”

조기 관세자유화 품목 88개 달해 ... 휴대폰·반도체 경쟁심화도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석유화학을 비롯한 국내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산은경제연구소가 7월14일 발표한 <중국-타이완 ECFA 체결의 국내산업 영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수출 중 중국시장에 50% 이상을 의존하는 석유화학산업은 조기 관세자유화 품목에 88개가 포함돼 타이완의 중국시장 잠식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의 일부 품목과 철강업종도 타이완 경쟁기업들이 버티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잠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자동차와 조선은 타이완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시장 잠식 가능성이 낮으며, 정보기술(IT) 제품들도 무관세 품목들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차이완 효과로 휴대폰과 비메모리반도체 등은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6월 말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국가 간 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인 ECFA를 체결해 각각 539개와 267개 품목을 조기수확품목으로 지정하고,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서정욱 산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브랜드 파워와 제품 차별화, 핵심기술 확보 등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적극 진출해 시장 잠식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4>